

# 학술분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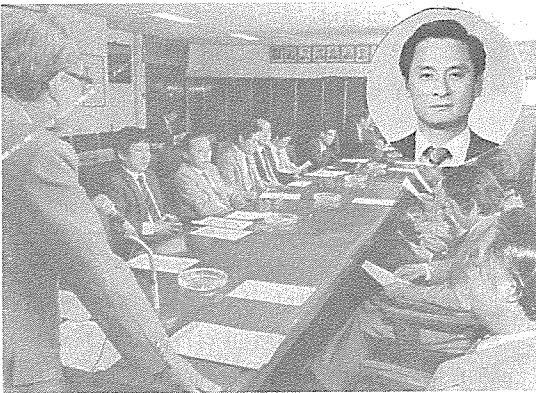
## ◎ 치협학술위원장에 劉東洙교수 (서울대치대) 選任

분과학회총회의에서 口頭呼薦에 의해 滿場一致로 치협에서는 지난 11일 서울대치대 회의실에서 학술담당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분과학회총회회의를 가진바 있다.

李永玉회장이 주재하고, 邊碩斗부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분과학회총회의는 李永玉회장이 그 선출방법을 문자 口頭呼薦으로 하되 경합이 될 경우 투표로 결정하자는 金瑞東 의료관리학회장의 제의가 받아들여져 閔丙一 약안면·구강의과 학회장이 추천한 劉東洙교수(대한약안면방사선학회장)가 單一 후보로서 滿場一致로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새로 선임된 劉東洙 부회장은 소감을 피력하는 가운데서 「李永玉회장을 보필해서 학술분야의 사업이 비록 방대하기는 하지만 능동적인 회무수행으로 그 所任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劉東洙교수는 1956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구라봉사회 회장과 대한약안면방사선학회장을 맡고 있다.



〈분과학회총회 회의에서 학술담당 부회장에 유동수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원내는 유동수부회장〉

## ◎ 제주도치과의사회 정례보수교육 실시

제주도치과의사회(회장 夫三煥)에서는 지난 4월

19일 KAL호텔 회의실에서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4년도 정례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연자: 김종열교수(연세대치대)

○연제: 의료사고에 대한 법의학

## ◎ 경북치과의사회 보수교육실시

경상북도 치과의사회(회장 황 경)에서는 지난 5월 4일 경주 조선히otel 회의실에서 8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84년도 정례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 바 있다.

○강사 및 연제

ㄱ) 보철을 위한 구강의과:

김종원 교수(서울치대 교수)

ㄴ) 최상목 교수(서울치대 교수)

치과 개업의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치주치료

ㄷ) 근관충전의 변형된 방법들:

최성근 교수(연세치대 교수)

ㄹ) 소아치과영역의 예방 고정:

이종갑 교수(연세치대 교수)

## ◎ 경남치과의사회 보수교육 실시안내

경남치과의사회(회장 김태하)에서는 회원의 학술연마와 친목도모를 위한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다 음 ＝

1. 주 최: 경상남도 치과의사회
2. 일 시: 1984. 6. 16(토), 13:00~17:30  
6. 17(일), 09:30~13:00
3. 장 소: 창원시 소재 창원관광호텔 회의실
4. 교육과목 및 연자

●제 1 일: 1984. 6. 16

- 1) Partical Coverage에 의한 유지장치에 대하여 최부병 교수
- 2) 구강의과 전후처치에 대하여 이상철 교수
- 3) 치주질환의 진단예후 및 치료방안 최상목 교수
- 4) 약안면부위 감염의 처치 김여갑 교수

● 제 2 일 : 1984. 6. 17

5) 법치학적 연령감정

김종열 교수

6) 소아교정의 필요성과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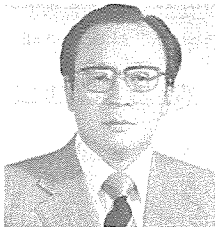
손동수 교수

7) 보존치치에 대하여

이정석 교수

### ◎ 대한구강보건학회 보수교육실시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金晃中)에서는 지난 4월 27일 경희대 세미나실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한바 있는데 연자와 연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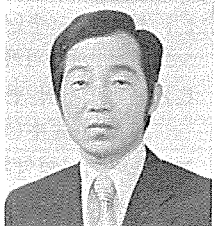
〈회장 金晃中 박사〉

연제 : 상수도수분화사업 추진방안

연자 : 경희치대 최유진교수

### ◎ 대한구강생물학회 제 9 차 정기총회 새 회장에 李種旿 교수 선출

대한구강생물학회(회장 丁東均)에서는 지난 4월 30일 오후 7시 서울대 치대에서 40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신임 李種旿 회장〉

이날 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李種旿 교수(서울대 치대)를 선임하는 한편 348만원의 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그 집행부를 구성했다.

총무이사 : 김 관 식

학술이사 : 정 종 평

재무이사 : 박 우 찬

감 사 : 최 유 진

### ◎ 국제치과연구회(IADR) 한국지부 총회성료 신임회장에 金明國 교수 선임

國際齒科研究學會(IADR) 韓國支部 올해(제2차) 정기총회가 지난 2일 오후 6시 서울치대에서 열려 새 회장에 金明國교수를 선임했다.

40여명이 참가한 총회는 2백59만원의 결산액을 승인하고 支部연회비 1만원, 입회비 1만원, 本部 연회비 20불등을 기준으로한 예산안 편성을 신임 집행부에 위임했다.

IADR에는 전세계 60여개국에 가입하면서 기초 및 임상분야의 대학교수들을 비롯 개업의로서 논문 발표 및 연구에 관심이 많은 치과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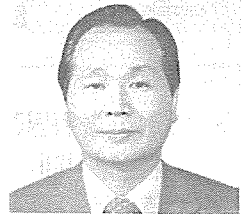
신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총무및재무이사 : 이종훈

학 술 이 사 : 김종열

학술정보교향위원 : 최유진

Councilor : 정종평



〈신임 金明國 회장〉



〈I. A. D. R. 회장 Dr. A. Richard Ten Cate〉

또한 金明國회장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5개항목으로 요약했다.

1. 한국지부가 IADR의 한지부로서 승인된지 2년밖에 안되었지만, 김주환 및 정동균 전회장님,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그동안 많은 질적 및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2.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IADR의 참뜻을 알리며 대학의 교수님이나 개업의로서 학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한국지부를 보다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3. 그럼으로써 매년 개최되는 IADR Meeting에 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하고 국제수준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정을 받도록 하겠다.
4. 그런 연후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Japanese Association과 Joint Meeting을 해야 하겠다.
5. 더욱 나아가서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I-ADR Meeting을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Japanese Association에서는 1980년에 Osaka에서 개최한바 있다.)

## ◎ 임상가를 위한 치과연수집담회 100회 기념 조찬회 겸 학술강연회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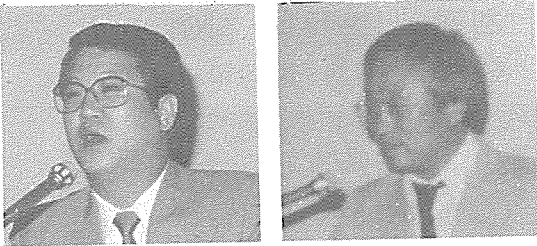
인제의대 치과학교실(주임교수 姜孝植)이 주관하는 학술집담회가 지난 11일로 100회를 돌파, 그 기념조찬회 겸 학술강연이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고 진지하게 열렸다.

이날 100회 기념집담회에서는 서울치대 孫性熙교수의 강연에 이어 李勝雨 교수팀이 제공한 기능장애의 치료에 대한 비디오 상영이 있었다.

安炯珪교수, 池憲澤 前 협회장, 丁東均 前 학술위원장, 尹仲鎬 연세치대학장, 李柱鳳 서울치의회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姜孝植교수는 「처음부터 연수회의 성격을 띄면서 한 과목이라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하여 1개연제를 5~6시간까지 폭넓게 진행했으며 기초와 임상을 망라, 학술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오늘날까지의 학술집담회의 성격을 설명하고 현재회원은 22명이며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1982년 1월22일 인제의대 白病院 회의실에서의 첫 모임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8시30분 부터 약 1시간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월회비 2만원을 받아 강사로로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동 기념행사 석상에서 서치회장에 당선된 李柱鳳박사(인제의대 외래교수)에게 축하패와 치과임상 權照雄 주간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인사하는 姜孝植교수와 演者인 孫性熙교수〉



〈서치회장 취임 기념패를 받는 李柱鳳박사〉



〈100회기념 학술강연장〉

## ◎ 대한치주과학회 제23회 정기총회

大韓齒周科學會(회장 李萬燮) 정기총회가 지난18일 오후 7시 경희의료원에서 열려 6백45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회무활성화에 전력키로 다짐했다.

60여명이 참가한 이날 총회는 6백22만원의 지난해 결산액을 승인하고 학회역사편찬, 치주용어 재심의, 구강교육재료발간등 올해 사업계획과 회원당 연회비 1만원, 찬조금 2백만원을 전제로 편성한 6백45만원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윤경호 민상기, 우광덕, 장지우씨 등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총회는 특히 과년도 연회비의 미납자 1백여명에게 독촉장을 보낸후 일정기간 동안 납부치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정지키로 하고, 전문의 실시에 따른 치주학분야의 모든 문제등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키로 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집담회는 서울치대 張翼泰교수의 「Gingettage System of management of gingival sulcus for impression taking」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창립 제20주년기념 종합학술대회 개최

大韓齒科技工士協會 창립 제20주년 기념종합학술대회가 지난 19~20일 이틀동안 전제회원 1천3백여명중 1천여명이 등록한 가운데 서울 올림픽아호텔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 개회식에는 李鍾守 齒協부회장 등 관계내빈과 5백여회원이 참가, 金榮坤 학술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는데 尹南基회장은 대회사에서 「새로운 기공기술 발전과 숭고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 기념식장, 원내는 金榮坤 학술위원장〉

한 정신함양으로 보다 밝은 내일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리자」고 강조하고 李永玉회장(李鍾守부회장 대독)은 「평생교육을 통한 기술습득에 전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학술부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게 수여되는 학술대상은 金榮坤 학술위원장에 수여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이틀동안 「성공적 보철물 제작을 위한 치과의사와 기공사의 역할」(張翼泰 서울치대교수), 「Extra Coronal Precision attachment」(金光男 서울치대교수)등 2개의 특별강연과 「84년보사부의료 시책 방향」의 교양강좌 11개연제와 일반강연등이 관심있게 진행됐고 특별전시장에는 13개 기재업체가 참여, 최신 기공기재등을 선보였다.

## ◎ 서울·구로구치과의사회 학술집담회 개업의로선 첫 비디오 학술강연 실시

구로구 치과의사회(회장 성광석)는 지난 9일 여의도 관광호텔에서 학술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7시 회원 49명중 46명이 참석, 높은 참석율을 보인 가운데 진행된 학술집담회는 김광남교수의 「국소의치 설계의 기본원리」에 대한 강연과 한보균박사의 「구강암에 대하여」비디오 학술강연이 실시 되었다.

개업의로선 처음으로 구강암에 대한 학술 비디오 강연을 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시술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 학술적 지식보급에 새로운 면을 제시해 주었으며 회원들의 지식의욕을 고취,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학술강연회 광경〉

## 大齒機材商協, 돌팔이 척결에 능동적 참여

회보 월간발행 및 장학사업 전개

金幸得 대한치과기재상공협회장은 齒協이 중점사업으로 전개하는 돌팔이 척결사업에 적극협조,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지난 22일 올회기 전반기 사업추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자체적인 정화사업의 강력한 시행을 강조하고 齒協등 치과의사단체와 상호협력,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회장은 또 돌팔이 척결과 함께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사업에는 齒協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절실한 만큼 새로운 방향에서 전환점을 모색하겠다고 주장하고 회원간의 뉴스 교환과 제품 소개등을 위해 지난 4월에 창간된 「齒材商뉴스」를 계속 월간으로 발행하며 장학사업도 폭넓게 전개, 올 2학기부터 서울치대생 1명을 선정하여 등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창간사

### “名実相符한 업계 伴侶紙되게”

대한치과기재상공협회 회장 金幸得



발행되는 회원 여러분! 국민주권운동에 협조하여 전직하는 지극히 어려운! 사리는 하등이 다르게 급격한 변천을 거듭하고 있으며 일부는 의료보장체제의 안전, 국민복지생활의 향상으로 경의 모습 차의 구현에 여건완성 국민적 화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치과재료 업계는 오랜동안 지속된 불황을 수습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고 이해와 협의로 서로 원조하여 슬기롭게 대처 해왔으며 최강한 인건비를 견뎌내어 이제 우리 치과는 이제나 최강의 수습이 이루어져서 이제나 내 눈앞으로 눈멀은 명실상부한 치과로 발

을 거듭하기 위한 내외의 환경이 되면서 도 신속하고도 강력한 정보를 전달해줄 여의성이야말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본인은 최강으로 편집하면서 회보를 발행, 내외의 정보를 신속하게 알수하여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며 회원들끼리 정보교환으로 인접을 보다 용이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운영되는 회원 여러분! 저희 편집부는 여러분분의 절대적인 강연에 협력이 대단을 받고 출판한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편집부는 그동안 교신차없는 힘

입 모든일을 다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회원 여러분은 같이 생각하고 우리 편집부는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하여 최보필성이 필요하여 뒤늦게나마 이제 「치과상공뉴스」의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창간호는 뉴스레터 형태의 회보이지만 협회 잡지이며 처음 회보를 발행한다는데 대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치과상공뉴스」가 우리협회에 명실상부한 반석으로 모든 회원 여러분의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 모든

〈齒材商뉴스-스 창간호〉